

설교제목 :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성경본문 : 사도행전 3:1-10

찬양 : 은과 금나 없어도, 예수이름으로(복음송)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마하트마 간디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야 어떻게 살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삶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평소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관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늘 이야기하고,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이나 주식등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신앙에 관심있는 사람은 성경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늘 입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 즉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매일 지인들의 도움으로 미문에 나가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이에게 다가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주관 관심사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에게 .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랑할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것이라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구걸하며 살아가든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입니까? 최근 1주일 동안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말속에는 자신의 관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려면 내속에 예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미문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성전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첫번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가치,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자입니다.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1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세번 기도를 했습니다. 제 3시에는 아침기도로 드렸고, 제 6시에는 낮기도로 드렸으며, 제 9시 기도에는 저녁기도로 드렸는데 아침기도와 점심기도와 달리 이 기도 시간은 제물과 함께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동안 공중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철야예배나 수요일예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미문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는 자는 금과 은을 그들에게 바랐지만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라” “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것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구걸했을까요? 바로 그는 나면서 부터 걷지 못했고, 재산이 없었기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구걸한 사람이었습니다.(2,3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보다 사람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성전 밖에서만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성전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사람의 시선과 도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만 보였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세번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의 지인이 나옵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을 떼고 성전 미문에 두고 갔던 사람입니다.(2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이 나옵니다. 치유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도 그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 역시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의 지인, 성전에 있었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이 달랐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물질만 구걸하였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기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가 있었기에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의 유산이 아닌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2.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일평생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년동안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가 오늘도 여전히 남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전부이고 내일이란 희망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금과 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구걸하던 이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금도 은도 없다고 그럼 뭘 주겠다는 거지하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화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원했던 것은 금과 은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질은 주었다면 하루 이틀동안 물질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잠시동안이지만 배고픔을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줄 수 있고, 성전미문까지 엮고 갈수 있지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도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도 안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남다른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군인도 아닙니다. 그는 양을 돌보는 목자일뿐 다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인 아닌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적을 바라볼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이는 매일 나면서 못 걷는 이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거나 또 어떤 이는 이들에게 약간의 물질로 구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 십년동안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으며, 떨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서고, 걸으며, 떨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 움직입니다. 기적의 씨앗이 떨어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 견지 못한 사람이 견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1. 우리속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국내교회 100교회, 해외교회100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영안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믿음으로 기도한 히스기야왕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개인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특공대와 사슬이 이어 기도하는 000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특공대 위에 함께 하여 주사, 기도와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땀게 하소서.

4. 당회장목사님의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중직자와 부교역자들이 아론과 훌처럼 사역을 돕게 하시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